

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적자 확대 9월말 기준, 역대 3번째 규모 기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2020년·2022년 이어 90조 진입
공공부문 지출 확대·세수감소 원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역대 3번째 수준까지 늘어났다. 10~12월 석 달치 집계를 남겨둔 9월 말 현재 적자 폭이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90조 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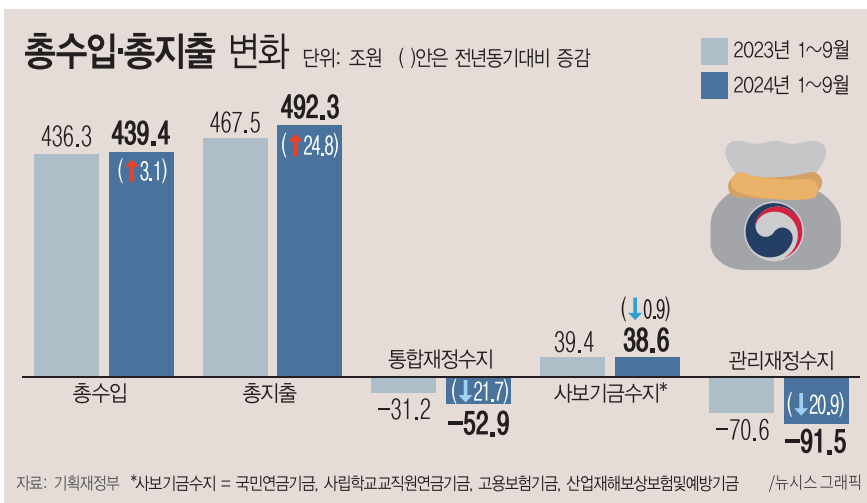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52조9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8조6000억 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108조4000억 원), 2022년(-91조8000억 원)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적자가 향후 더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며 “본예산은 목표라기보다는 전망치이고 그것을 딱 맞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정부 살림살이 악화의 결과로 작용했다. 1~9월 국세수입이 255조3000



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조3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 중 특히 법인세(-17조4000억 원)가 급감했다. 소득세(+4000억 원)와 부가가치세(+5조7000억 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으나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하진 못했다.

세외수입은 22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24조8000억 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4조1000억 원), 퇴직급여(1조5000억 원), 부모급여지급(1조1000억 원)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

이 기재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000억 원으

로 나타났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10월 금리인하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 선반영, 중동지역 긴장 고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정·관세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3.8%였다. 10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93%)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337%로 전월(318%) 대비 상승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8조6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8조7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전망했던 전체 국가채무가 있는데, 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전망치에 근접할 것”이라며 “대규모 상환이 11월에도 있고 순발행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IAT, 혁신 생태계·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전략적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책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해 공동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국장급 공무원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협업

을 본격화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해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IAT는 경제자유구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특구 활성화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논의해 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자유역과 특구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특구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전국 지역 전통주를 한곳에 모았어요”

농식품부-aT, ‘우리술 대축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5~17일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1만 명 넘는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통주 행사다. 소비자들에게 우리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사전등록 관람객 수가 전년도의 약 3배인 6200여 명에 달했다. 참여업체 수도 116개소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막걸리 빚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을 비롯해 한정판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는 특별경매쇼, 주류 트렌드 세미나 등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또 우리술 대축제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지역 전통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23일 경기 화성의 한 양조장을 찾아 산·학계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전통주 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나로마트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0개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전통주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후 입점 매장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우수한 전통주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행사인 만큼, 오셔서 다양한 우리술을 즐기시고 참여업체 역시 본인들의 제품을 마음껏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 안전기술로 건설현장 안전성 강화

고용부, 12개 전문건설사와 협력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해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 개발을 통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산업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대응”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
국내 최초 석유·가스 공동 저장소
수소·암모니아 청정에너지 확장 계획

울산 남구에 건설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 KET는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에너지터미널로 평가받는다. 준공식이 14일 오전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KET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전남 여수 석유저장시설(오일허브코리아여수) 준공에 이어 2번째로 준공된 국내 에너지 거점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항만 조건 등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며 “현재 여수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 터미널 또한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이 공존하는 에너지터미널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석유 중심의 모델을 탈피해 천연가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복합 터미널로 추진됐다. 혁신적 모델로 거듭난 만큼, 향후 수소·암모니아·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울산 남구에 자리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뉴시스

시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저장 터미널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터미널은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그간 국제 석유거래업 신설,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 등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에 앞장서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대규모 국가 기반사업인 석유 비축기지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터미널 설계·건설에 기여했다.

민간부문인 SK가스의 경우, 울산지역의 민간 LNG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

해, 울산지역 첫 번째 LNG 터미널 구축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터미널의 상업성을 대폭 확대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석유·가스 저장시설(총 440만 배럴) 모두 대여 계약을 마친 상태다. 170만 배럴 규모의 석유 저장시설은 해외 트레이더사의 석유제품 트레이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270만 배럴 규모(20만톤)의 가스 저장시설은 울산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의 신규 발전·산업 연료 등으로 공급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